

대학에  
바란다

# 대학, 청년들에게 꿈과 패기, 열정을 심어줘야 \*

조진형 |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

1945년 해방 당시 문맹율 90%, 1인당 국민소득 45불의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한국이 오늘날 첨단 IT산업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어려운 경제 사회적 환경, 심지어 전쟁과정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교육 열정이었다. 교육을 통해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 하지 않겠다는 한국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강렬한 교육 열정으로 많은 인재들이 대학 교육을 통해 배출되었으며, 이 같은 고등교육을 받은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 자원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1980년대 초 까지만 해도 이 같이 국가경제 발전에 필요한 고급 산업인력 공급의 역할을 대학에서 담당해 왔고, 이렇게 대학에서 배출된 현재의 중 장년층은 당시 수출만이 살길

이다 라는 절연한 수출 독려 구호 속에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팔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내다 팔면서 이 나라 경제를 키워왔던 주역들이었다. 사실 사회적 인프라와 기술, 경제환경 무엇보다 제대로 변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 시절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가슴에는 그같은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진취적인 패기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같은 열악한 환경은 오히려 문제해결 역량 강화와 성취를 위한 동기유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원 빈국인 한국을 오늘날 세계경제 강국으로 우뚝서게 한 것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선진국 경쟁업체들조차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사업을, 열정과 문제해결 능력으로 극적으로 성공시켰던 청년 경제인들의 패기와 열정, 애국심

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대학은 이 나라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인 청년들에게 머리에는 첨단 지식을, 가슴에는 꿈과 패기, 열정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학생들에게 꿈과 패기와 열정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대학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이다. 대학은 학문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술연구, 교육의 최고기관이다. 따라서 학문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학문하기 위한 환경과 동기 유발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 결코 좋은 대학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학문한다는 것은 인문학적 사색과 자연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추상적 개념이나 가설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를 창출하거나 찾아내어 개념적 지식, 가설을 체계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추상적 개념을 체계적인 지식화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의 전공 학문 분야에서의 성취하고자 하는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애면글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청년들의 꿈과 열정, 패기의 문화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이 할 일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대학의 현실을 바라보면 압담하기 그지없다. 1980년대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다 보니 4년제 대학의 수가 200개가 넘고 2016년에는 대학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내용적

인 면에서도 대학이라고 호칭하기 민망할 정도의 부실대학이 적지 않은 외화내빈의 현실에서 청년 대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 대신에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 잡혀 안정적 진로를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4년제 대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묻는 질문에 공무원, 교사 등 정년이 보장되는 직종을 우선 선호하고 기업경영가나 과학기술자의 선호도는 하위 순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이같은 대학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현실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학문의 전당이기를 포기하고 사실상의 공무원 입학원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어떤 지방 대학의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공무원 사관학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을 정도다.

이같은 청년 대학생들의 안정 선호형 진로 선택 경향은 IMF 이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학 졸업생들 대부분이 회사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려하기 보다는 회사 조직을 필요로 하는 안정적 급여 근로자가 되기를 원하는, 즉 자신이 유능한 경영자, 과학기술자가 되어 수많은 국민들을 먹여 살릴 인재가 되기보다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남이 주는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는 것에 만족해 한다면 그건 이 나라의 재앙이다.

무엇이 우리 대학생들을 이렇게 나약하고 소극적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IMF이후 어린나이에 부모 세대의 퇴출을 목격한 청년

세대들의 안정 추구 심리 등 사회 환경적 요인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대학생들에게 꿈과 열정, 패기 문화를 안겨주지 못한 대학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최근 대학 구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부실대학 10대 평가지표를 보면 학부모이자, 대학교육의 소비자인 기업경영자 입장에서 그 지표들의 효율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실판단 10개 지표는 재학생 총원율과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외전입금 비율, 등록금 의존율, 신입생 충원율로 기준하고 있는데, 대학의 구조개혁안이 여전히 교육의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학구조 개혁의 부실판단 기준에서 교육의 소비자 즉 기업들의 관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재학생 충원율을 강조하다보면 마구잡이 신 편입생 유치가 예상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질보다는 양적 취업으로 고용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고, 경직된 전임 교원 확보율은 오히려 실질적인 산학협동을 통한 산업전문가들의 교수 활용의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학사관리와 장학금 지급률 등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대학의 질을 평가하고 향상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기업 입장에서 대학을 독립채산제 부서로 운영하면서 성과 평가를 하게 한다면 필자는 대학의 부실 평가 지표를 교수, 재학생, 학교시설 및 서비스 3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

할 것이다. 교수 영역에서는 교수들의 국내외 유명학술지 연구논문 발표 건수와 각종 지적재산권 출원 및 사회공헌도, 산학협동 실적, 재학생 영역에서는 재학 중 특허기술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 등록 및 실용화 건수, 연구논문 기고, 문단 등단 실적, 전문기술 자격증 취득 및 개인 및 동아리의 사회공헌도 등을, 시설 및 서비스 영역에서는 도서관 소장도서 이용율, 졸업생에 대한 리콜강좌 운영, 학생만족도 등을 측정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열정적으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는 교수가 제자들에게 꿈을 꾸게 할 수 있으며, 꿈을 이루기 위해 모험을 마다하지 않은 패기있는 청년 대학생들만이 진정 이 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대학 졸업생을 신입 직원으로 채용하는 고등교육의 수요처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조직을 필요로 하는 기성형 근로자가 아닌, 조직이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라는 점에 착안하여 대학에서 청년 학생들에게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키워주기를 바란다. 요즘 기업체 인사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사람은 많은데 인재가 없다”는 말이 유행이다. 대학생들이 이른바 스펙쌓기에 열심이지만 정작 기업체에서는 외형상 스펙보다는 휴머니즘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난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대학이 좋은 대학이고 존재가치가 있는 대학이다.

만일 대학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낸다면 청년실업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실업의 책임은 정부정책의 잘못보다는 대학과 대학생 자신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에 빌붙어 사는 것 보다도 자기 주체적으로 창업을 시도하려는 벤처 정신이야말로 청년의 꿈이요 패기다.

그렇다면 대학은 어떻게 꿈과 열정과 패기를 지닌 창의적 인재로 키울 것인가?

첫째는 대학의 교육방법과 평가방식이 혁신되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강의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과제를 찾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도 스스로 찾게 하는, 현장 중심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자연과학분야는 물론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도 현실 체험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재 대신에 신문지 한 부를 배부하고, 그 신문기사 내용 중 상업화할 수 콘텐츠를 찾아내도록 하는 브레인스토밍을 반복하다보면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적어도 현장에서 즉각적인 실무 투입이 가능한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 같은 브레인스토밍 위주의 강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들의 실천적 현장경험과 충실한 강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교수사회에서 순수학문과 진리추구라는 명분에 집착하여 실용성을 등한시하거나 배척하는 풍조가 일부 남아있는 바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21세기 지식 기반사회는 지식의 개념이 독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

유하는 사회이고 급격한 사회 기술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과학기술분야는 물론 이와 접목되는 인문학적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미디어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콘텐츠수요를 인문학의 르네상스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더 이상 학문의 순수성이 실용성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학문의 순수성이 과학기술과 인문학적 콘텐츠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콘텐츠 수요가 순수 학문의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좀더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 우물을 더욱 깊게 파듯이 순수성과 실용성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석의 양극처럼 서로 다른 극성을 지녔음에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학은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적 인재를 배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실용적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의 인식전환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창의적이고 패기있고 실천적인 교수 밑에서 제자들도 창의적, 열정적인 인재로 성장한다.

둘째는 전방위적 산학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심지어 인문사회 과학 전공마저도 산학협동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꺼려하고 경력사원을 선호하는 것은 대학졸업 신입사원의 실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 교육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인재 배출에만 치중하여

대학이 취업 준비기관으로 전락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의 인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 올바른 가치관 등은 특정한 강의가 아니라도 대학문화와 일상 강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양될 수 있다. 제한된 교수인력과 학교시설을 고려할 때 실용적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산학협력이 필요하다. 현재도 각 대학별로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공과 직접 연계되는 산업계의 현장전문가에 의한 실무교육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부 학과와 교수에 한정되어 있는 산학협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재학중에 자기 전공과 관련된 산업현장에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토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직무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공 학문에 대한 학습 성취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상장기업의 정보통신사업 담당 임원으로 있을 때 지방 대학 교수 한 분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 분께서는 자기 학과 전공 커리큘럼과 학생들을 소개한 후, 현장 실습에 협조해줄 것과 향후 우리 기업이 원하는 스킬이 필요하다면 그런 교육과정을 반영시키겠노라면서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취업을 부탁하셨는데, 참으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대학 교수라는 자존심을 접고서 자신의

제자들이 졸업 후 진로와 연계될 수 있는 업체들을 강의없는 날을 이용하여 방문하면서 현장 실습과 취업 의뢰를 할 수 있는 교수와 대학의 모습이 이제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은 제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감을 갖고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애쓰는 한 지방대학 교수의 모습이 보편적인 대학교수의 캐리커로 인식될 때 자연스럽게 끝날 것이다.

이 산학협력을 잘 활용한다면 대학의 특성화도 가능하리라 본다. 백화점처럼 모든 학과를 갖춘 대학보다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구 실적 등에서 산학협력의 성과가 우수한 대학이 특성화대학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셋째는 학생들에게 기업이 정신을 고양 시킴과 동시에 창업보육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88만원 세대, 청년백수 같은 청년실업과 고용의 질 저하 현실에 대해 정부의 경제, 고용정책만을 탓하는 것은 일종의 카타르시스일 뿐 현실적 대안은 아니다. 이제까지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던 성취욕이 강한 진취적이고 패기있는 청년들은 이미 중장년으로 접어들었거나 은퇴기를 맞고 있다, 이제는 한국경제 성장 동력의 엔진을 현재의 청년 대학생으로 교체할 준비를 할 때다.

그러나 현재 많은 대학생들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벤처정신을 잃고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마인드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대학생들에게 재학 중에 비즈니스모델이 나 특히 등을 출원시키게 하거나 산학협력과정의 부산물로서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창업보육 기능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재학중 창업을 인턴십 학점인정과 같이 학점인정 등을 통해 적극 육성,보육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은 기업체의 기술, 자금 지원을 적극 알선하는 역할과 함께 기업 경영에 필요한 회계,행정 등 경영,행정실무 교육과 지원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능한 학생들이 스스로 취업보다는 자기의 꿈을 비즈니스로 실현해 보고자 하는 창업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면 비록 많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 것이 곧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한국경제를 지켜나갈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학부모와 경제인 입장에서 우리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들에게 자신의 전공학문과 인생에 대한 비전을 꿈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패기와 열정을 새로운 대학문화로서 심어줄 것을 바란다. 그래야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흐름 속에서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학 자체가 존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대학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대학생들의 꿈도, 패기도 열정도 없고 한국은 최고의 국제경쟁력이었던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잃어 결국 국가적 재앙으로 맞을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대학이 최근 구조개혁을 통해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필자소개

조진형 |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

서강대에서 정치학석사, 동국대에서 박사(북한사회문화전공)과정을 수료했고, 1999년3월 한국 최초의 사이버시민단체 공권력남용방지를 위한 시민의모임을 결성하였으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인창조기업 자문위원(2007년), 대구한의대 강사(2005~2007년), 교육과학기술부학부모정책자문위원(2009년)로서 활동했다.

현재 대통령실 교육정책자문위원(2009~현재)과 민주평통 자문위원(14,15기),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용도서발행심의위원(2009~현재), 숙명여대입학사정위원회사회자문위원(2010년~현재)을 맡고 있으며, 2006년부터 (사)자율교육연합의 공동대표이자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